



'불사조 오리' 또한번의 역전극

얼마전 사냥꾼의 총에 맞고 냉장고에 갇혀있다 기적적으로 살아난 오리 이야기가 화제로 떠올랐다. 이 오리가 워낙 큰 상처를 입어 치료 도중 숨이 멎었는데 심폐소생술 덕에 기적적으로 살아나 끈질긴 생명력이 다시 한 번 화제가 되고 있다. 불사조 오리 '퍼키' 가 또 한번의 역전 드라마를 연출한 것이다. 사냥꾼이 쏜 총을 맞고 냉장고에 이를 동안이나 갇혀있다 극적으로 살아난 오리 '퍼키'! 그런데 이번에는 상처 치료 도중 갑자기 숨이 멎으면서 또 한번의 위기가 찾아왔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처럼 보였던 '퍼키'! 하지만 놀랍게도 심폐소생술을 받고 또다시 새생명을 얻게 되었다. 야생동물 보호가는 우선 산소를 공급한 후 희미하게 심장뛰는 소리를 듣고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며, 세 번 씩이나 생사를 넘나들었던 오리는 현재 다리의 상처 빼고는 매우 건강한 상태라고 전했다.

닭의 몸에 오리의 다리???

뾰족한 주둥이에 빨갛게 솟은 닭볏.

누가봐도 수탉이 분명하지만 몸통에 달려있는 것은 생뚱맞은 오리발! 뾰족뾰족 날렵한 닭발이 아닌 물갈퀴가 달린 둥툭한 오리발이다. 이 닭은 심지어 수탉의 머리를 하고 암탉의 울음소리를 내는 등 사람들을 끊임없이 헛갈리게 하고 있다. 닭을 너무 오리



끈질긴 오리의 생명력!!

가까이에 키우면서 닭과 오리가 사랑에 빠져 혼종이 태어난 것이 아닐까 추정한다는 닭 주인 레니포씨는 6개월 된 이 닭을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애완용으로 계속 키울 예정이라고 한다.

건강하게 뛰노는 '다리 네 개 오리', 시선 집중

영국의 한 농장에서 다리가 네 개 달린 오리가 태어나 화제가 되고 있다고 17일 디스이즈 햄프셔 등 영

Hampshire.net

Home Newsletter Site Map Search Advanced Search Back to index The Daily Echo keeps you 100% of Hampshire news!

Heard the one about Stumpy? It's a EVN Video
Or Play video
By Debbie Mistry

Stumpy, the duckling born with four legs, has definitely got four legs.

With four legs, you have quite quackers! There are now three legs, this little duck has definitely got four legs.

There have been reports of creeps with four legs and toes and claws with two heads but Nick Farmer Nick's Jenness had never seen a duck with four legs until it hatched from her new farm last week.

Stumpy, as he has been named, is as yet fluffy as all his other brothers and sisters, two distinctive features that none of them have extra legs.

Nick, who runs Warrington Duck Farm in Croydon, Surrey, says that he was shocked to find the egg could not hatch because the shell would not fit around him. She took him up to check him and noticed something three legs but then I realised he actually had four.

"I didn't think he would survive but in fact he's perfectly fine and he doesn't even notice it."

국 언론이 보도했다. 다리가 두 쌍 달린 오리는 최근 영국 햄프셔주 뉴 포레스트에 위치한 한 오리 농장에서 태어났는데, 정상적인 다리 아래 쪽에 두개의 다리가 추가로 붙어 있는 모습. 노란색에 아직 솜털이 채 가시지 않은 '다리 두쌍 오리'는 다른 형제 자매 오리와 함께 농장을 뛰어 다니고 있는데, 건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 농장 주인의 설명. 농장 주인인 니키 제나웨이는 "다리가 네 개 달린 오리를 얻은 것은 처음"이라며 놀라움을 표시했고, 동물 전문가들 또한 이 같은 오리의 모습에 깜작 놀라고 있다고 언론은 설명했다. 다리 네 개를 이용, 걸음마를 배우고 있는 오리는 '스텀피'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